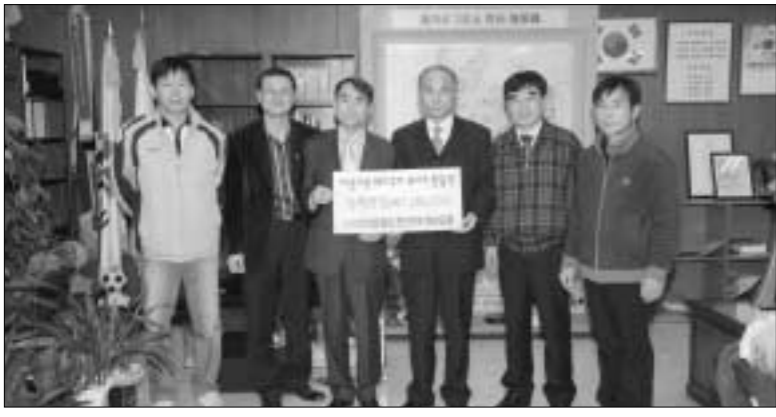


포천시양돈협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회비 및 폐품 판매금 대금 700만원 전달



대한양돈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호근)에서는 지난 18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회비 및 폐품 등을 팔아 모은 성금을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700만원을 포천시에 전달했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거행된 전달식에는 황영철 부시장, 최영길 부회장, 안성길 부회장, 최영길 사무국장, 왕영일 감사, 김광준 농축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황영철 전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

해 "저물어가는 황금때지 않은 정해년에는 축산업이 한미FTA타결, 사료값인상 등 예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렇게 자신보다 불우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박호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포천시에서는 양돈협회의 고귀한 뜻을 잘 새겨 우리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한 이웃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토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 전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상공회의소 2008년도 신년인사회

1월 9일 11시, 기관단체장·상공인 초청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1월 9일 오전 11시 용정회관에서 2008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관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 및 상공인을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심재인 포천시부시장(시장권한대행), 서효원 경기행정2부지사, 고조흥 국회의원, 이주석·이우형 경기도의회의원, 이강립 포천시의회위원장 등 8명, 김귀환 포천경찰서장, 이보형 포천

소방서장,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 임희동 포천시법원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이종기 의정부세무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는 대회사, 축사 등 1부행사와 화합결의식, 건배제외, 오찬 등 2부행사로 나눠 실시될 계획이다.

신년인사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상공회의소 031-535-007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정해년을 보내면서



심재호 (가산농협협동조합장)

존경하는 조합원과 임직원, 그리고 고객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도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농협의 유지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귀하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오는 날이 많았고 병충해도 극심하여 농작물의 수확도 감소되었고, 계속되는 유가 폭등과 FTA협상이 체결되어 농민과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실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우리 임직원들은 화합과 단결로 웰빙 친환경 농법으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여 연합 판매사업을 통해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시작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조합원과 고객의 실익 증대를 위해 우리농협의 자립경영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의 근간이 되는 예수금이 역조되는 상황 속에 우리 가산농협은 성장되어 상호금융에대비

을 100%로 1천300억원의 매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사업부 문도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 교육지원사업비를 약 9억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이 앞두고 사업마무리를 위해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순이익금 20억원 이상 달성이 예상되어 우리 가산농협 역사상 최대의 수익을 창출한 해로 조합원에게 더 많은 실익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임직원과 조합원 그리고 고객이 함께 일구어 낸 쾌거로서 자축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농협사랑과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戊子年(무자년)에도 영농자재 지원비 4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녀 대학입학장학금 등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투명한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조합원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농협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협의 발전이 조합원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줄로 사료됩니다. 사소한 과오라도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는 농정활동에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정해년을 보내면서 조합원과 임직원 가족 그리고 고객 여러분의 특별한 후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 무자년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6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

최고의 순간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표 임준석

영원한 순간으로 간직될 소중한 만남과 뜻깊은 각종 모임 등을 위한 격조 높은 공간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0-7 대표 임준석)가 새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고객 맞이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 가슴 떨리는 사랑의 맹세가 시작되는 순간의 장소로 여러 고객들의 소중한 예식행사는 물론 가족행사, 단체행사, 각종모임, 기업행사 및 특별행사 등을 품어 낼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오픈 한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는 본관 앞뒤로 약2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입구에 들어서면 정성을 다해 예쁘게 꾸며진 메인카드가 돋보이며 고객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불편을 느껴온 고객들을 위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로 불편을 해소 하고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 운영으로 친대, 의자 등을 준비해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에서 정성을 다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식단 메뉴로는 김 크랩, 케밥, 캘리포니아 롤 등 호텔음식에 버금가는 요리로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이 곳의 자랑이다.

또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가 자랑하는 특급요리(가격대는 2만원부터 3만5천원)를 출장을 통해 맛볼 수 있다. 약 50인 이상 고객이면 출장 부페가 가능하다.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는 결혼식과 고하, 회갑, 돌 고객들에게 드림 세탁기와 정수기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시 빔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시켜주는 등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모든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고객들의 만족 없이는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초지 일관 고객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격 웨딩·부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대표는 "각 파트별로 주어진 일에 최

호텔 음식에 버금가는 요리제공으로

가격대는 2만원~3만5천원 까지 다양

넓은 주차공간과 지상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는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예식홀과 예식실, 신부 신랑 대기실, 드레스실, 미용실, 맛사지실, 펌팩실 등 세련된 공간활용으로 넓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해 고객들에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층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과 백일, 돌, 고회원 등과 친목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 등에 최적의 장소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3층에는 예식, 고회원 등에 필요한 대형 홀(500~600여명 가능)과 100여명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호텔 식 원탁형 룸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모친(강육자 늘봄 꽃 화원 운영)의 직·간접적인 협조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식 실내엔지니어와 고가의 특수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으며 넓고 쾌적한 공간보유로 모든 고객들이 각종 행사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가 고객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길 기대해 본다.

예약 문의 전화 031)543-2008, 8820, HP.018)255-368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영원한 순간으로 간직될 소중한 만남과 뜻깊은 각종 모임 등을 위한 격조 높은 공간 늘봄 컨벤션 웨딩·부페(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0-7 대표 임준석)가 새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고객맞이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17

보험으로 재테크, 세테크를...

재테크 하면 흔히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을 떠올리게 되는데 보험이야말로 재테크의 제대로 된 명수이다. 재테크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미래에 대하여 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닐까? 만일의 위험에도 대비하고 목적자금도 활용하고 더 나아가 노후에 대한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겠는가!

혹, 만일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위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장분석을 받아보는 것에서부터, 재테크의 마지막 대비책이라 할 수 있는 노후보장을 준비하는 은퇴설계까지 제대로 된 재테크는 보험을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많은 가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은퇴설계 또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이며 그때 가서 얼마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금 얼마 정도의 자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가 더욱 많다.

최근에는 보장분석과 은퇴설계까지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보험회사가 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야말로 무선적인 재테크라 할 수 있다.

재테크와 더불어 세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의 세제적 특성을 활용한 상품은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테크와 세테크 등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막연하게 내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절대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생겼다면 이자 소득세를 무려 1,650만원이나 내야한다. 또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은 상속세, 증여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추가 상등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이야말로 보험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재테크에 적격 상품이다.

재테크하면, 지금보다 나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한 방법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게 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공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는가? 대부분 재테크를 한다고 한다. 그것은 소득공

제나 비과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보험 상품에는 복리로 적용하는 상품들이 늘고 있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면 복리의 마술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하다.

반드시 중복되는 상품내용은 없는지 알아보고 중복되는 보장은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아야한다.

보험은 제대로 따져보고 꼼꼼히 눈여겨 가입한다면 재테크, 세테크를 동시에 하면서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보장도 해 주기 때문에... 이리해서 보험은 행복할 수 있다.



이미정 코인스포럼협회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 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4천만원이 나온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자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자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

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자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지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 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

산업안전사고 예방

교반기 내부 작업 중 불시 가동에 의한 감금·협착

▶ 재해발생 개요

○ 0000년 0월 0일 11시경 인천광역시 소재 유기화학제품 제조 작업장에서 교반기 고무 라이닝 관리 외주공사업체 피재자가 교반기 내부에서 라이닝 점검 중 내부점검 작업을 인지하지 못한 원청업체 근로자가 교반기를 작동시켜 피재자가 교반기 회전 날에 감금·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수리·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부적절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에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치.

나. 작업지휘자 미배치

○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실시
○ 당해근로자 외의 자가 기계운전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나.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기계설비의 불시 가동을 미연에 방지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최초 나이와 최종 나이는?

노동의 의무 생기는 18세로 시작해

은퇴시기인 60세로 결정

27세 미만인 학생·군복무자는 제외

18세 이상이 최초 나이이며 만 60세가 최종 나이다. 18세는 병역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최초 나이로 정해졌다. 노동의 의무 역시 18세에 생긴다. 18세는 대부분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라고 봐도 좋다. 따라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이로 보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내야하므로 18세가 기준이 됐다.

또 60세 이후를 은퇴시기로 보기 때문에 가입최종 나이를 60세로 정했다. 현재 연금수령시기도 60세에 맞춰있지만, 의학기술에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연금수령시기를 매년 조금씩 늦춰 향후 65세로 조정될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는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나이 규정만 있어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해당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